

## 19세기 캘리포르니오(California)와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Spanish Fantasy Past)’ : 헬렌 헌트 잭슨의 『라모나』(1884)를 중심으로\*

이 은 아

서울대학교

이은아(2014), 19세기 캘리포르니오(California)와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Spanish Fantasy Past)’ –헬렌 헌트 잭슨의 『라모나』(1884)를 중심으로–.

**초 록** 헬렌 헌트 잭슨(Helen Hunt Jackson)이 1884년에 발표한 『라모나 *Ramona*』는 1850년대 골드러시가 시작되기 이전 19세기 남부 캘리포니아 사회, 즉 스페인-멕시코계 미국인인 캘리포르니오(California)의 란초(Rancho) 계급 사회를 배경으로 한 다인종적 로맨스 소설이다. 란초 생활을 낭만적이고 전원적으로 묘사한 이 소설은 19세기 후반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스페인적 유산의 부활(Spanish Heritage Revival)’ 흐름을 촉발시켰다고 평가받았을 만큼 엄청난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캘리포르니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앵글로계 미국인이 주도한 ‘스페인적 유산의 부활’ 흐름, 『라모나』가 야기한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라는 역사적 담론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앵글로 중심의 제도권 흐름에 맞서 캘리포르니오의 진정한 목소리를 탐색하려는 최근 연구의 성과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특히, 19세기 말 허버트 밴크로프트가 7권으로 편찬한 『캘리포니아 역사』에 동참했던 마리아노 바예호의 역사적 의식과 여성들의 증언적 목소리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읽어냄으로써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에 가려진 캘리포르니오의 역사적 인식을 파악하고, 성(gender)과 내밀함(intimacy)이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정체성 발현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폭넓게 언급하였다. 특히 여성의 공적·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내밀한 관계를 통해 그동안 캘리포니아 역사에서 간과되었던 여성 증언의 사료적 중요성을 확인해 보았다.

**핵심어** 헬렌 헌트 잭슨, 『라모나』, 캘리포니아 란초 사회, 캘리포르니오,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 마리아노 바예호, 『증언들』, 내밀함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I. 들어가며

헬렌 헌트 잭슨이 1884년에 발표한 블록버스터 소설인 『라마모나 *Ramona*』는 1850년대 골드러시가 시작되기 이전 캘리포니아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상류계급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19세기 알타 캘리포르니아(Alta California) 사회, 즉 캘리포르니아의 란초 사회를 재현하는 역사적 지식과 대중적 흥미를 동시에 제공한다. 게다가 이 소설은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을 뿐 아니라, 19세기 후반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주목 받은 ‘스페인적 유산의 부활’ 흐름을 촉발시켰다고 평가받았을 만큼 엄청난 문화적 파급력까지 보여주었다.

물론 이 흐름에 비단 잭슨만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화가인 찰스 크리스천 나홀(Charles Christian Nahl), 역사가인 허버트 밴크로프트(Hubert H. Bancroft), 남서부 문화 주창자인 찰스 플레처 러미스(Charles Fletcher Lummis) 등이 ‘스페인적 유산’이라는 신화를 만드는 데 일조한 대표적 인물들로 거명된다. 리처드 그리스월드 델 까스띠요(Richard Griswold del Castillo)에 따르면, 이 소설은 135권이 출판되었고, 적어도 4편의 영화와 수많은 연극으로 각색되었다(1980, 3-4). 2000년에는 텔레비사에서 텔레노벨라로 제작되었는데, 당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키기까지 했다(Irwin 2003, 561).

그러나 잭슨의 창작 의도는 본래 인디언의 인권 탄압과 인종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이 작품 이전에 작가는 『불명예의 한 세기 *A Century of Dishonor*』(1881)라는 역사 에세이를 발표했지만 대중적 관심을 얻지 못하자, 좀 더 폭넓은 독자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허구적 장르는 선택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작가의 사회 고발적 의도가 무색하게 독자들은 란초 사회에 대한 낭만적 묘사에 마음이 사로잡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상류층 문화에 흠뻑 매료되었다. 작가의 고발 의도가 퇴색하리만큼 낭만적이고 화려하게 재구성된 역사와 풍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역사 연구와는 별개로 90년대부터 초기 치카노 연구 선상에서 『라마모나』와 마리아 암파로 루이스 데 부르톤(María Amparo Ruiz de Burton)

의 소설<sup>1)</sup>이 학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작품들은 미국학 중심의 연구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만한 논쟁적 소재로 인해 시대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초기 치카노, 초기 경제지대 연구자들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또한 작품들은 경제지대에 관한 연구가 부상하면서 미국 남서부의 문화적 다양성, 탈국가적 정체성, 인종적 교류 등의 동시대적 문제의식과 시의적 중요성을 통해서 논의되었다. 물론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백인성(whiteness)에서 기인한 인식적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앵글로계 미국인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미국의 근간 소설’이라는 범주에 도전장을 내밀만한 다종족적 로맨스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라모나』가 앵글로계 미국인들에게 스페인적 과거에 대한 환상을 환기시킨 점과 캘리포르니오에게 잃어버린 란초 계급 사회에 관한 낭만적 초상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지만, ‘스페인적 유산의 부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캘리포르니오라는 주체적 목소리를 논외로 하면서 수동적 위치 혹은 새로운 사회에 통합된 흔적으로만 간주한 반면 잭슨의 주도적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캘리포르니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잭슨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소 다르게 평가하는 시각이 등장했다. 즉, ‘과거사 부활 흐름’의 주창자라기보다는 19세기 전반 캘리포니아의 문화번역자이자 인류학자로 해석하는 경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스페인적 과거’라는 주조된 이미지는, 19세기 캘리포니아의 변화로 인해 정치경제적 부침을 겪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삶을 심도 있게 살펴볼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증언을 바탕으로 복원된 역사서, 특히 앵글로계 미국인이 기획한 역사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만한 여성들의 증언, 다시 말해 란초 내 여성들의 공적/사적 활동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역사의 내밀한 영역이 사료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 내밀한 목소리가 그

1) 루이스 데 부르폰에 대해서는 김현균 · 이은아(2012) 참조.

동안 드러나 있지 않던 캘리포르니오의 삶의 세부를 부분적으로나마 깊게 조명해 줄 것이다.

이 글은 『라모나』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아니다. 다만, 『라모나』의 성공으로 재조명된 ‘스페인적 유산의 부활’에 대한 역사 담론의 의미와 효과, 이에 대한 최근 학계의 도전을 일별하면서 캘리포르니오 사회에 대한 이해를 포괄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라모나』를 통해 부상한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통해, 역사 복원의 주체와 앵글로 정복을 정당화하는 인종적 위계성이 ‘명백한 운명’의 논리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국내에는 골드러시 이전의 캘리포니아 역사에 대한 연구 성과가 드물고 특히 멕시코계 인종이나 종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시도는 거의, 혹은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분야와 소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치가노 연구 혹은 경계연구를 보다 기원적 과거라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수행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역사문화적 연구 성과를 되짚어봄으로써 캘리포르니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II. 알따 캘리포르니아 사회와 란초 계급 사회

### 1. 캘리포르니오의 정의

일찍이 지금의 남부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원래 거주하던 선주민 인디언과 1769년을 기점으로 수도원이 건설되기 시작한 후 정착한 스페인 출신 식민주의자들, 그리고 멕시코 중앙에서 이주해온 메스티소들이 주로 거주했다. 금광이 발견된 후에는 앵글로계 미국인들과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인해 인구 구성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19세기 란초를 기반으로 한 엘리트 계급인 캘리포르니오들은 정치경제적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가, 앵글로계 미국인에 의한 정복 과정이 인디언, 스페인-멕시코계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

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캘리포르니오가 정확히 어떤 계급이나 계층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한 게 사실이다. 출신 배경이 다양해 정체성을 규정하는 작업이 사실상 어려울뿐더러 용어 자체에 이미 인종적 차별 의식 또한 짙게 내포되어 있는 탓에, 캘리포르니오를 정의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계급과 인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캘리포르니오 계급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따 캘리포르니아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불가피하다. 1769년 처음 유럽인들에 의한 식민화사업이 시작된 후 18세기 말에 이르면 남부 캘리포니아에만 21개의 수도원이 건설된다. 1821년 멕시코 독립과 함께 단행된 세속화 정책으로 인해 수도원 공동체가 해체됨과 동시에, 멕시코 정부의 토지분배 정책과 인디언 노동력의 확보로 인해 란체로(ranchero) 계급 사회가 확대·정착하게 된다(Kropp 2006, 25). 1848년 미-멕 전쟁 이후 극동 지역으로 향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영토 합병과 골드러시를 따라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서 수적 우세를 점하던 스페인어 사용인구인 캘리포르니오는 정치적, 법률적으로 재산을 방어하지 못한 채,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예컨대 1851년에 시행된 토지법은 농장주들의 토지권을 보장하는 법이었으나 소유권을 증명할 공문서를 완비하지 못했던 캘리포르니오들은 법정에 설 수 밖에 없었고, 고비용의 지루한 법정 싸움은 대개의 경우 토지 상실로 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캘리포르니오들이 지역 헤게모니를 상실하자 스페인어로 번역된 모든 법률들은 법안 입안자나 정부 관료에 의해 폐지되었다(López 2011, 219).

이러한 기만적인 토지 강탈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가인 밴크로프트는 7권으로 된 『캘리포니아의 역사 *History of California*』의 6권에서 “법정에 나가기 전에 이미 소송자 중 8분의 7이 정부에 의해 토지를 빼앗겼다. [...] 일반적으로 그들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계속된 법정 다툼에서 잃어버렸다. [...] 변호사들은 토지와 가축에 관련해 사소한 도움만을 줄 뿐 사실상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엄청난 소송 비용을 요구했다. [...] 부동산의 상당 부분은 매우 약삭빠

르고 부유한 투자자들의 수중에 넘어갔다”(576)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부유했던 캘리포르니아 자녀들은 점점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어 하층 육체노동자로 전락했다. 이런 토지 문제는 루이스 데 부르폰의 『불법점유자와 신사 *The Squatter and the Don*』, 피트의 『캘리포르니아의 쇠퇴』, 토마스 알마 게르(Tomás Almaguer)의 『가짜 인종 구분: 캘리포니아에서의 백인 우월성의 역사적 기원 *Racial Fault Lines: The Historical Origins of White Supremacy in California*』 등에 구체적으로 등장한다.<sup>2)</sup>

앞서 언급했듯이, 캘리포르니아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그 범부와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실제 이 카테고리가 아우르는 계급 또한 지극히 모호하다.<sup>3)</sup> 가령 『남부 캘리포니아 *Southern California*』(1946)를 쓴 캐리 맥윌리엄스(Carey McWilliams)는 계급 개념을 기반으로 스페인적 문화 소양을 지닌 지주층을 지목하며 캘리포르니아로 정의한 반면, 레오나드 피트(Leonard Pitt)는 『캘리포르니아의 쇠락 *Decline of the California*』(1966)에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캘리포니아 출생 여부를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출생지나 계급, 문화적 귀속감을 포함해 스페인어 사용 인구라는 특징을 지닌 캘리포르니아들은 자신들의 스페인 뿌리를 식민정복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찾는 경향이 있다. 스페인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사실,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인식이 오히려 문화적, 제도적으로 더욱 스페인에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낳았다. 멕시코 독립이후부터 확연히 이중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골드러시 동안 멕시코에서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자 한층 더 스페인 문

2) 마리사 로페스(Marissa K. López)의 『치카노 국가들 *Chicano Nations*』(2011, 219-220)에서 재인용.

3) 캘리포르니아의 용어의 다양성은 다음 책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앨버트 우르타도(Albert Hurtado)의 『내밀한 경계: 옛 캘리포니아의 성과 젠더, 문화 *Intimate Frontiers: Sex, Gender, and Culture in Old California*』, 마리아 라겔 까사스(María Raquel Casas)의 『지주 딸과의 혼인: 1820-1880년 스페인-멕시코계 여성과 인종 간 결혼 *Married to a Daughter of the Land: Spanish-Mexican Women and Interethnic Marriage in California, 1820-1880*』, 리즈베스 하스(Lisbeth Haas)의 『1769-1936년 캘리포니아의 정복과 역사적 정체성 *Conquests and Historical Identities in California, 1769-1936*』.

화에 자신들의 존재를 밀착시키고자 노력했다(Pearson 2013, 29). 피트는 캘리포니아의 정체성이 멕시코 독립으로 인해 보다 확고히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캘리포니아가 멕시코의 지배를 계기로 스페인적 뿌리에 더 강하게 집착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지역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자신들을 차별적으로 인식했고(Pearson 2013, 30) 멕시코 독립 후에는 멕시코인과 구별 짓기 위해 알타 캘리포니아를 독립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표출했다. 피트의 표현을 빌자면, “멕시코의 ‘열등한’ 영향력에 저항할 목적으로 자신의 캘리포니아 태생을 의식적으로 강조했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반응으로 지역적 명명법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스페인인이나 멕시코인이 아닌 캘리포르니오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Pitt 1966, 7).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르니오로 불린 사람들의 실제 인종적 배경은 여전히 논쟁적이고 모호하다. 이들은 스페인 태생의 사람들, 스페인계 크리오요, 멕시코계 지주 등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토지 소유계급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당시의 인구 지형도는 인디언, 임금을 받지 못하는 란초에 귀속된 메스티소 노동자, 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로 임금을 받는 메스티소 노동자, 란초 지주인 캘리포르니오 등이다. 캘리포르니오는 스페인 순혈주의를 역설할 수 없는 혼합된 인종으로 구성되었기에, 일부 학자들은 그들을 이성을 지닌 사람(*gente de razón*), 곧 교양인으로 매우 느슨하게 분류해서 이해한다.

## 2. 『라모나』와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

『라모나』를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개념은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일 것이다. 현재 남부 캘리포니아의 초기 역사는 로맨스에 굶주린 동부사람들의 과거 복원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Kropp 2006, 19).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라모나』는 캘리포니아의 빼어난 풍광을 배경으로 스페인계 캘리포르니오들의 상류층 문화에 인종의 경계를 가로지른 로맨스가 개입되면서 더욱 흡인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지역 중심의 문화적

답론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스페인 판타지가 이후 캘리포니아의 문화 정책에도 적잖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라모나』의 출판이 갖는 의미가 비단 문학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라모나』 기억: 허구, 관광 행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과거 입히기 *Ramona Memories: Fiction, Tourist Practices, and Placing the Past in Southern California*』라는 글에 실린 일명 관광지도인 ‘라모나 국가의 랜드마크(Landmarks of *Ramona's* Country)’(888)는 『라모나』가 누린 위상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잭슨은 19세기 캘리포르니오 사회에 대한 단상을 이해하고, 특히 란초를 묘사하기 위해 당시의 유명한 가문들을 직접 방문해 작품의 모델로 삼았다. 특히 나 벤투라 카운티에 있는 델 바예(del Valle) 가족의 까물로스 농장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카우트(Couts) 가족의 과호메 농장이 잭슨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킨 실제 농장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는 1853년 엘에이의 4번째 시장이 된 안토니오 꼬로넬(Antonio Coronel)<sup>4)</sup>을 통해 아도베 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댄스 파티와 사교 모임 등의 화려한 일상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소개받은 나머지 두 가족의 란초를 방문하게 된다. 꼬로넬, 델 바예, 카우트 등은 캘리포르니오 사회에서 지명도가 매우 높은 가문의 사람들로서, 사료적 가치가 큰 그들의 란초는 이후 관광 명소로 재탄생되었다.<sup>5)</sup>

과거 역사 복원에 관한 논의에 앞서 『라모나』의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라모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버지와 캘리포니아 인디

4) 안토니오 꼬로넬은 잭슨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맡았다. 그는 가난한 멕시코 출신의 신분에서 엘리트 캘리포르니오가 된 사람으로 자신을 스페인 돈(Don)으로 자처해, 지나간 시대를 구현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바에호는 ‘사라져 가는 옛 캘리포르니오’라고 명명했다. 잭슨의 현지 조사 과정을 보면, 꼬로넬의 아도베 집, 멕시코 유물, 성인상, 수도원 성물, 스페인어로 된 책 등에서 문화적 아우라를 발견했음을 알 수 있다(Pearson 2013, 49). 잭슨은 책을 집필하기 전, 1882년 남부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면서 4편의 에세이를 잡지에 발표를 하고, 이를 『캘리포니아 탐방과 수도원 *Glimpses of California and the Missions*』이라는 책으로 엮는다. 이 책에 꼬로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있다(Pearson 2013, 59).

5) 이런 과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가족으로 델 바에는 과수원에 라모나 상표를 붙였고, 케이브 카우트 주니어(Cave Couts, Jr.)는 과호메 농장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의 기호에 맞췄다.

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지만, 모계 중심의 모레노 집안에 입양되어 계모인 세노라 모레노의 양육을 받는다. 이상적이고 전원적인 모레노 란초와 그 내부의 엄격한 인종차별적 문화는 라모나의 외모와 인성을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노라는 자신의 외아들인 펠리빠가 그녀에게 이성적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라모나의 연인인 알레한드로(영어식 표현은 알레산드로)는 테메꾸라(Temecula) 지역의 원주민으로 란초에서 스페인식 예술·문화 교육을 받은 양치기다. 그는 란초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젊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다. 무장한 미국인들이 인디언 마을을 공격하는 사건으로 인해 알레한드로는 집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아버지 또한 여의게 된다. 세노라 모레노는 그들의 결혼을 격렬히 반대하면서 라모나를 감금하지만 라모나는 도피에 성공해 알레한드로와 가정을 이룬다. 라모나는 처음에 산빠스꾸알레라는 곳에서 인디언 생활을 즐겼으나,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극심한 가난을 체험한다. 미국 침입자들이 그들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앵글로 의사의 태만으로 인해 첫 아이가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알레한드로는 정신을 잃기 시작한다. 혼미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를 말도둑으로 오인한 술 취한 카우보이에 의해 총상을 당해 사망한다. 라모나는 생사를 오갈만큼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이지만 펠리빠가 그녀를 구해 란초로 다시 데려온다. 세노라가 이미 사망한 후라서 그들은 부부가 되지만, 미국인들의 습격으로부터 란초를 지키는 일에 절망하고, 스페인어마저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극심한 소외감을 느낀다. 결국 멕시코시티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애국지사와 미의 상징으로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다.

소설의 전체적 내용을 관통하는 다종족적 로맨스에 대해서 비평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로맨스의 결론이 암시하는 잭슨의 미래상에 대해서만큼 크게 대립되지 않는 듯하다. 양키 정복자들이 토지를 점령하는 모습과 인물들의 속수무책 반응을 지극히 불가피한 일처럼 묘사하기 때문에 고발적 의도보다는 비극적 결말의 숙명성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라모나가 알레한드로와 함께 인디언 마을에 갔을 때 이미 토지는 파괴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이주

한 다른 인디언 마을에서도 땅을 약탈당하게 된다. 정착할 토지를 빼앗기는 고통, 거주지와 함께 생명까지 잃게 되는 알레한드로와 그의 아버지의 비극적 운명, 마지막으로 란초를 잃고 멕시코로 향하는 라모나와 펠리페의 미래를 보면, 캘리포르니아에겐 캘리포니아가 이제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든 곳으로 느껴진다.

## II. 스페인적 유산의 부흥

『라모나』를 통해 촉발된 역사복원의 문제, 그중 가장 크게 대두된 스페인적 과거는 사실상 인종적 우월성으로 귀결된다. 스페인적 과거가 몰락하는 현재에 줄 수 있는 보상은 자신들이 향유했던 상류층 삶이 경제적 권력뿐 아니라 태생적 특권에서 기인했다는 믿음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왜 미국의 담론과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앵글로계 미국인과 캘리포르니아의 입장의 차이는 무엇이고, 역사쓰기의 문제에 있어 그들의 주체적 목소리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 보자.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는 이 시기 역사를 다룬 맥윌리엄스의 『남부 캘리포니아』에 나오는 개념으로 케빈 스타(Kevin Starr)나 맥윌리엄스와 같은 학자들은 잭슨의 소설이 스페인적 전통 유산의 부활이라는 흐름에 가장 큰 동인을 제공했다고 파악한다. 스타는 앵글로계 미국인들이 “새로운 미국 지역에 로맨스를 부여한 대중적 신화의 기초로서 『라모나』의 인물, 분위기, 플롯을 취했다”(Starr 1985, 54-55)라고 평가한다. 맥윌리엄스는 앵글로 미국인들에게 이런 신화가 거주민적 지속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라모나』에서 환기된 스페인적 과거가 캘리포니아 역사의 ‘성스러운 측면’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sup>6)</sup>

화려한 향수와 비극적 감상주의를 적절히 혼합한 이 소설이 낭만적 과거를 기반으로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앵글로 미국인들의 판타지적

6) 마지 브라운-코로넬(Margie Brown-Coronel 2011, 5)에서 재인용.

욕망을 충족시켰다(Pearson 2013, 43)고 하는 평가는 『라모나』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모레노 란초에 대한 묘사를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신 스페인(New Spain)’은 영속적인 고리이자 이곳 사람들의 따스한 기억과 깊은 애국주의에 대한 자극이었다. 햇살이 비치는 해변위에 또다시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 더욱 감성과 흥이 흘러넘치는, 진짜 극적이고 로맨스가 있는 전 원적인 삶이었다. 각종 향이 거기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현세기에 존재할 산업과 기계가 아직 그곳에 흠을 내지 않았다. 세노라 모레노의 집과 같은 그런 집들이 남아 있는 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Ramona 2002, 13)

이와 더불어 모레노 란초의 이미지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은, 레나토 로살도(Renato Rosaldo)의 표현(『문화와 진리 *Culture and Truth*』)을 차용하면, ‘제국주의적 향수(imperialist nostalgia)’<sup>7)</sup>에 다름 아니다. 정복자 자신들이 파괴된 장소에 대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자기 보상 혹은 위안의 방식과 진배 없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스페인적 과거 부활’은 이런 향수에서 비롯됐다. 『라모나』의 성공은 관광업의 성황, 수도원 건축 양식의 부활, 연이은 역사서 출판으로 이어졌다. 앵글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스페인 스타일의 건축, 페스티벌, 관광명소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과거 유산을 되살리고자 했다(Kropp 2006, 1-5).<sup>8)</sup> 또한 로스앤젤레스의 연중 퍼레이드 ‘라 피에스파’<sup>9)</sup>처럼 관광 상품을 개발해 근거리 과거사의 아픔을 망각하게 만드는 문화적 퍼포먼스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앵글로 미국인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시킨 ‘스페인 유

- 
- 7) 로살도는 전통의 사라짐에 대한 식민주의자의 애도를 제국주의적 향수로 보았고, 자신의 폭력성을 기술적으로 감추면서 과거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을 교묘하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 8) 크롭의 연구는 『옛 캘리포니아 *California Vieja*』에서 앵글로계 미국인들이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를 어떻게 도시 계획이나 관광 사업에 활용하였고, 나아가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이고 같은 도시의 바리오에 멕시코인들의 주거 구역을 한정하게 됐는가를 보여준다.
- 9) 윌리엄 드버렐(William Deverell)은 “라 피에스파는 로스앤젤레스의 엘리트 앵글로들에게 지난 수십 년간의 불쾌함, 즉 18세기, 19세기에 거쳐 생긴 남서부의 핏빛 역사를 세탁하고 망각케 할 이상적인 도구를 제공했다”(Deverell 2004, 59)라고 주장한다.

산 부흥'은 스페인어 사용 인구를 오히려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캘리포니아의 수도원은 20세기 초 이 지역의 후원자들에 의해 고유의 서사를 획득했지만, 진정한 역사성이 사라진 채 관광 명소에 맞게 재구성된 스페인적 과거의 초상만을 남겼다(Lorimer 2013, 99). 또한 낭만적으로 구성된 모든 유적의 서사적 배경에는 저항 내러티브는 물론 인디언의 경험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가 만든 이상화된 역사적 서사는 성과 젠더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비호하고 고착시켰다. 특히 캘리포르니아의 자녀와 백인 남성 간의 결혼은 마치 아무런 상흔 없이 성행한 양 그렸다. 인종간의 결합을 통해 백인 남성은 토지를 획득하고, 캘리포르니아는 미국 상류 사회에 자신들의 정착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지극히 당연하고 편리한 절차인 것처럼 이해했다.

그러나 『라모나』의 영향력이 일견 대단했다손 치더라도, 잭슨이 비극적으로 사라져가는 캘리포르니아-스페인적 유산을 복원했다거나, 혹은 부활 운동을 주창했다기보다는, 그런 흐름에 앞서 동조했던 것으로 파악하는 편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잭슨이 앵글로의 대중적 상상력에 캘리포르니아의 모습을 투사했고 『라모나』가 캘리포니아의 진짜 이야기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캘리포르니아 창작자의 역할을 일면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캘리포르니아의 대변자라기보다는 번역자의 역할에 가까웠다. 비록 주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페인어 사용인들이 자신들의 위치와 목소리를 찾는 노력이 '문화적 기억' 만들기로 정의되는 '라모나주의'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환상적 유산'<sup>10)</sup> 일지언정 스페인어 사용인들이 지역적 관점에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되살리는 과정을 통해 역사 만들기의 일부에 참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모나』 소설은 연극으로 각색되어 매년 상연됐고, 한때 부유했던 스페인계 후손들이 이를 후원했다. 물론, 앵글로계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묘사된 스페인계 사람들을 메스티소 이미지로 고착시키는(Castañeda 1990, 12-13) 오류를 늘 범했다. 따라

10) 맥윌리엄스는 1888년을 스페인적 전통 부활운동의 시작으로 보았다. 이 해 '수도원 보전 연합'의 기초가 되는 단체에서 수도원 건축물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 “캘리포니아의 스페인적 유산의 의미와 중요성은 이것이 진리냐 허구냐 라는 데 있지 않고, 만들어진 전통의 미학과 정치학에 놓여있다”(Pearson 2013, 14)는 말이 매우 타당한 지적이 될 것이다. 역사적 기억의 변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가 당면한 환경을 점유하는 심경과 현재를 해석하는 관점을 통해 유동적 정체성을 획득했다는 사실이 과거를 주체적으로 점유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 III. 인종적 우월성과 캘리포르니오의 정체성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가 내포한 인종적 우월성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지녔는가에 따라 『라모나』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이 판명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캘리포르니오가 주장하는 백인성은 무엇인가? 잭슨은 이를 어떻게 비판했으며 그의 도전과 관계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잭슨은 인종 차별에 저항했으나 앵글로 외의 모든 사람들을 타자화, 정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앵글로 위주의 복원 흐름이 주로 건축물, 축제 등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캘리포르니오들은 현재의 상황을 위로해줄 과거의 영광, 특히 혈통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북아메리카에서 스페인적 흔적을 본격적으로 남긴 18세기 중반 식민 정복의 시기에서 자신들의 혈통적 근거를 찾았다. “우리 선조들에게 영광스러운 기억을 정당하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 그들은 힘과 인내로 강력한 북미 연합이라는 오늘날 가장 소중한 진주인 이 아름다운 땅을 수백만의 인디언의 발톱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sup>11)</sup>라는 바예호의 언급이 이 사실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스페인 출신’이라는 말은 인종을 지칭하기보다는 시대나 시기의 의미를 더 많이 함축하고 있는데(Kropp 2006, 10), 꼬로벨의

11) 첼시 펄슨(Chelsea Pearson 2013, 21)에서 재인용.

경우가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스페인, 캘리포르니아, 멕시코라는 출신 지역적 배경에 인종, 종족, 국가에 대한 감정적 판단이 시기별로 수위를 달리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을 한두 마디로 규명하기가 어렵다. 꼬로넬은 가난한 멕시코 출신 이민자에서 출발해, 부유한 캘리포르니아 교사이자, 앵글로 정책을 잘 수행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난 경험으로 인해,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자전적 변화 과정과 상관없이, 스스로는 스페인 '돈(Don)'으로 자처할 만큼 백인성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확고했다. 이런 꼬로넬의 언급은 부유한 캘리포르니아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했지만, 이후 정복에 성공한 앵글로들의 인종 개념과도 정확히 일치했다. 불행하게도 백인성을 기반으로 인종적 위계질서를 강조했던 캘리포르니아들은 경제적으로 몰락을 맞은 후 오히려 동일한 인종적 위계 구조의 저층에 편입되는 아이러니를 겪게 된다. 캘리포르니아들은 앵글로계 미국인의 관점으로 보면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암바로 데 부르뜨온의 경우, 소설 속에서 캘리포르니아의 상실과 쇠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민감한 인종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뿐더러 백인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판단을 보여준다. 반면, 잭슨은 캘리포르니아 식민주의, 인디언의 고통, 혼혈 같은 첨예한 문제들을 소설 흐름의 중요한 소재들로 부각시키고 있다. 암바로 데 부르뜨온은 캘리포르니아 부르조아를 '문화적으로 정의된 백인'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은 반면, 잭슨의 경우, 백인/원주민이라는 고정적 이분법을 탈피해 캘리포르니아의 인종적 집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백인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듯 느껴진다. 백인 캘리포니아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캘리포르니아의 욕망과 인디언에 대한 인종차별적 대우를 전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백인성 그 자체보다는 캘리포르니아의 자가당착적 태도를 문제시한다. 가령, 세노라 모레노가 캘리포르니아로 양육하는 딸의 인디언 혈통을 두려워하고 경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캘리포르니아 사회의 이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헤친다.

세노라는 라모나와 논쟁 중에 “내 핏줄에 흐르는 인디언 피가 오늘 보여요. [...] 내가 인디언이라서 항상 미워했던 건가요?”(Jackson 2002, 143)라는 질문을 듣고는, 그녀가 인디언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부인하면서도, 라모나가 알레한드로와 결혼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며 거의 죄악시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인디언 피의 반대편에는 스페인계 순수 혈통이 있는데, 소설의 첫 부분에 출신 지역과 함께 언급된다. 머스크향을 세노라가 좋아하자, 살비에르데라 신부님은 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세비아에 있는 세노라의 아버지 집에 마지막으로 머물렀을 때, 어머니께서 나를 당신 방에 보냈어요. 창문 아래 석조 발코니 아래에서 머스크(사향)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방에 가득해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세노라 어머니께서는 그게 병을 치료한다고, 그게 없으면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세노라께서 아기셨어요”(Jackson 2002, 17).

세노라 모레노가 스페인계 피의 순수성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은 프란시스코 수도회에 대한 깊은 신뢰와도 연결된다. 잭슨은 모레노 란초 내에 위치한 성당 채플은 일요일의 수도원과 흡사하다고 묘사한다. “남녀로 가득한 채플, 실내 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은 바깥 정원의 산책로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의복을 멋있게 갖춘 살비에르데라 신부님이 예배가 끝날 무렵 천천히 복도로 내려오면, 예배자로 열을 짝 채우다시피 한 공간은 그가 지나가도록 좌우로 갈라졌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며 쳐다보았다”(Jackson 2002, 19).

한편, 비평가들은 이러한 스페인적 혈통, 문화, 종교와 관련된 인류학적 묘사를 통해 잭슨이 자신의 정치 감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Alemán 2002, 75)고 평가하기도 한다. 란초의 생활이 일종의 인류학적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전형적이고 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인물들은 앵글로 독자층을 겨냥한 맞춤형 타자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으로 맥윌리엄스는 작품 속 인디언의 모습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정치적 반향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로 인해 캘리포르니오와 인디언에 대한 문학적 재현이 지나친 편견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레노는 인디언 인권을 탄압

하는 악의 화신으로, 알레한드로는 순수한 사랑과 이상을 지닌 교양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잭슨은 아름다운 인디언 여성의 이미지를 지닌 라모나를 앵글로가 지닌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이국적 인물로 재현한다. 캘리포르니아 사회의 교양인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라모나를 상류문화층에 완전히 동화된 숙녀로 묘사한다(Venegas 2004, 76). 라모나는 알레한드로와 가정을 꾸리면서, 그에게 새집 앞에 넓은 베란다를 짓도록 요구하고 집 내부에 제단과 성인상으로 장식을 한다. 이로써 인디언 마을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교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잭슨은 멕시코계 시녀들의 성적 문란과 라모나의 성적 순수성, 윤리성을 대조함으로써 인종적 위계에 대한 환상을 재확인하는 효과를 거둔다. 세뇨라 모레노의 고집스런 행동은 인종적 위계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상류층의 책무처럼, 란초 내 멕시코 출신의 시녀들의 가사 노동은 마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행위처럼 표현하고 있어(Venegas 2004, 78-79), 작가가 의식적 저항 없이 당대 앵글로 주류가 지닌 캘리포니아에 대한 전형적 인식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Kropp 2006, 33)는 말이 매우 적절한 분석으로 들린다.

알레한드로의 불행한 죽음, 빨리페와의 결혼과 멕시코로의 이주, 비록 이것이 완전한 비극적 결말이 아닐지라도, 인디언의 아픔과 이별, 란초의 낭만적 쇠락과 문화적 상실이 모두 동일한 수위에서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캘리포르니아 사회나 파괴되는 인디언 사회를 모두 동종적 타자의 과거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유럽계 미국인의 정착에 따라 열등한 캘리포르니아가 항구적 종속에 놓이는 운명이 마치 당연한 수순인 듯한 인상을 남긴다. 다만 소설 내 과도한 감성의 표출로 인해 19세기 후반 새로이 형성되는 인종적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이 교묘하게 감추어질 뿐이다. 따라서 잭슨은 캘리포르니아의 인종적 편견에는 혐오의 입김을 거세게 가했지만, 우월한 백인성이라는 개념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셈이다.

#### IV. 역사서와 캘리포르니오의 목소리

캘리포르니오들이 그들의 선대 혹은 과거의 삶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주체적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개입시켰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서 기술에 미친 그들의 영향력을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캘리포니아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자전적 경험을 녹취하는 일에서 출발했다.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가 캘리포르니오들의 자서전적 충동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은 아마도 뱅크로프트와 바예호의 역할 때문일 것이다(Kropp 2006, 28). 뱅크로프트의 19세기 캘리포니아 역사 복원 프로젝트는 캘리포르니오들의 삶이 미국 공식 역사에 포함되는 데 토대를 제공했다. 버클리 대학에 있는 뱅크로프트 도서관에 보관된 방대한 자료와 인터뷰 장소를 표시한 지도를 보면, 역사가로서의 사명감과 사료 수집에 쏟은 열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미-멕 전쟁 이전 이 지역의 대부호였던 바예호는 그의 집요한 설득으로 인해 미국 역사 기술 프로젝트, 즉 『캘리포니아의 역사』<sup>12)</sup>의 출판에 동참하게 된다. 바예호는 이미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역사를 집필 중이었으나 1867년 집 화재로 인해 원고를 소실하고 만다. 뱅크로프트는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문서와 바예호의 기억 속에 보관된 이야기들을 확보하기를 희망했다(Beebe · Senkewicz 2006, Intro XIX).

한편 바예호는 1875년에 출판한 『알따 캘리포르니아에 관한 개인적, 역사적 기억 *Recuerdos Historicos y Personales Tocante á la Alta California*』이라는 사적 비망록에서 캘리포니아 첫 시기부터 미-멕 전쟁시기까지 기록하는데, 내용적 측면으로 본다면, 문학사, 정치경제적 분석, 스페인 식민주의, 초기 멕시코 공화국, 미국 통치로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섭렵하고 있다. 바예호의 글은 원래 뱅크로프트 연구원들이 구어체 내러티브를 녹취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역사』 전집에 들어 있었다. 이 책은 그의 주거지인 소노마 지역에서 작성한

12) 『캘리포니아의 역사』는 1884-1890년 사이 출판되었다. 이 책을 위해 뱅크로프트의 보조 연구원들은 87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가졌고, 그 중 13명이 여성이었다.

개인 기록 문서로서, 밴크로프트에게 기부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그가 하나의 상상적 공간으로 캘리포니아의 부상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López 2011, 60-62).<sup>13)</sup>

밴크로프트와 바예호는 모두 역사 사료 편찬과 서술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냈고,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역사에서 부유한 농장 소유주들이 어떻게 해체되어 갔는가의 문제에 천착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귀속감과 공동체적 연대감의 차이에 따라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인종적 차이를 불가피하게 표출한다. 밴크로프트는 역사적 사실, 출판물의 상업적 계산, 미자본주의적 국가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서술의 객관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바예호는 캘리포르니아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 감상으로 인해 연대적 질서나 장르적 일관성을 모두 탈피해 서술하고 있다.

밴크로프트는 멕시코인들의 도덕적, 신체적, 정치적 나약함을 들어 우월한 미국인들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당연시하는 입장인 반면, 바예호는 이런 관점이 '사실과 환상의 이상한 조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망명자가 되어가는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고통스런 자각을 드러낸다(Kropp 2006, 42). 바예호는 밴크로프트 역사가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 준 것이 "캘리포르니아의 또 하나의 실수였다. 앵글로계 미국인 역사가는 땅을 빼앗는 사람들만큼이나 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회고한다. "바예호가 그 앞에 놓여진 원고들을 보고 노려보면서 놀라고, 틀림없이 수치스러워했을 것이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한다(Padilla 1993, 107).

이런 역사가들처럼 잭슨 또한 『라모나』의 '유령 작가(ghostwriters)'이자 '주인공'으로 불린 캘리포르니아의 정보원들(Kropp 2006, 45)이 기억하는 방식대로, 앵글로계 미국인들이 상상하는 낙후되고 원시적인 과거 사회와는 분명히 다른 지역적 모습을 복원시켰다. 그럼에도 잭슨은 란초 사회의 붕괴에 초점

13) 로베스는 바예호의 민족주의, 애국주의의 부재를 단지 스페인 유산에 대한 향수 탓으로 해석하지 않고, 탈국가적 인식을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을 맞추기 보다는 과거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종족적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앵글로 미국의 ‘명백한 운명’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내고 말았다(Kropp 2006, 42).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라모나』의 인기와 초기 자료라는 위상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차지한 앵글로계 미국인들이 지닌 선입견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 셈이다. 물론 잭슨이 란초 사회의 사라짐과 미국인의 침범에 대해 밴크로프트 처럼 안타까운 심정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란초 사회를 결점이 많은 권위적이고, 후진적이며, 편견이 짙은 곳으로 묘사하면서 정복의 불가피성을 암시했다는 점에서는, 캘리포르니오의 진정한 대변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 V. 캘리포르니오 여성의 증언과 내밀함

따라서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와는 다른 역사 해석, 즉 캘리포르니오의 주체적 목소리를 드러내는 연구 동향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캘리포르니오 사회를 내부인의 관점에서 분석한 리즈베스 하스와 더글러스 몬로이(Douglas Monroy)의 서적들은 캘리포르니오의 경험과 집단적 목소리를 중심으로 19세기 사회를 분석하고 있기에 역사를 바라보는 대안적 시각을 제시해 준다. 하스는 『1769-1936년 캘리포니아의 정복과 역사적 정체성』에서 스페인어 사용 인구의 기억과 정체성을 공동체적 경험 안에서 해석하고, 몬로이는 『이방인 사이에 던져짐: 멕시코계 미국인 문화 만들기 *Thrown Among Strangers: the Making of Mexican American Culture*』에서 스페인-멕시코계, 인디언, 앵글로계 미국인들 사이에 이뤄진 다양한 식민적 접촉, 특히 노동의 분배와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망의 구성을 분석한다(Brown-Coronel 2011, 8).

무엇보다도 캘리포르니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들 수 있는, 대안적 역사 쓰기를 위한 중요한 접근 중 하나는 사적 영역에 다가가는 것이다. 내밀함 관계들을 통해 공적인 역사의 흐름의 저변을 읽어내고, 증언을 통해 진짜 삶의 결을 찾아내는 연구 방식이 캘리포르니오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여기

서 소개할 델 바예 가문의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공식 역사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항적 내러티브를 제공한다.

『라모나』와 관련해 델 바예 가문은 스페인계 과거의 낭만적 해석과 신화 만들기라는 틀에서 논의될 만큼(Brown-Coronel 2011, 14) 이 가문에 미친 소설의 후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라모나』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까물로스 란초의 델 바예 가문은 당시 최고의 명문 가정으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잭슨이 이 지역 인사들을 통해 쉽게 소개받을 수 있었다. 란초 내 학교, 채플, 방문객의 숫자, 베란다의 사교 생활이 소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까물로스 란초는 델 바예 가계의 소유로 멕시코 정부에서 받은 4만 8천 에이커의 토지에 1839년 란초를 건설해서 가축 농장과 함께 꿀, 포도를 주로 경작했고, 가족과 노동자를 합쳐서 약 200여명이 생활하였다(Kropp 2006, 33). 이 란초는 이후 『라모나』의 인기로 인해 쇠도하는 방문객을 대접해야 하는 유명세를 한동안 치러야 했고, 현재도 웹사이트를 통해 투어 일정이나 과거 가족사가 담긴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모계 중심의 이 가계는 다른 캘리포르니오들과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된 소수 가문들 중 하나다.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가 환기시킨 부유한 란초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델 바예 가족은 란초 해체의 위기를 모면해 가며 새로운 경제 질서에 신속히 적응했는데, 이는 특히 가축 사육에서 농산물 재배로 농장 경영 방식을 과감히 변화시킨 결과였다.

피트는 『캘리포르니오의 쇠락』에서 앵글로 유입이후, 까물로스 란초가 계급 상승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가족 앨범에 과거의 모습은 제외한 채 당시의 부유함을 증명할 자료만을 실었다고 강조한다. “델 바예의 가족 사진 앨범이 대호황시대(gilded age)의 일상적 특징-사회 기고란, 댄스 초청장, 여행안내 책자, 결혼 장례 소식지, 방문객 호출 카드, 학교 졸업 프로그램, 가구와 여성 의복”(Pitt 1998, 269)을 담았다고 설명한다. 이 가족의 경우, 신화 만들기에 관여하면서 혜택을 취한 경우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델 바예 가문을 보다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등장했

다. 즉, 캘리포니아 란초 부호들이 앵글로계 미국인들의 역사 해석에 수동적으로 공조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적 주권을 지켜나갔고, 자신들 고유의 내러티브를 건설했다는 적극적 해석이다. 최근 대부호 란초 가문을 내부인의 시각에서 다룬 연구의 필요성이 여성을 분석의 중심에 두면서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따라서 앵글로 자본주의의 팽창과 정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계급, 인종, 성이라는 보다 미시적 맥락 안에서 일상생활을 조명하고, 특히 ‘성’과 ‘내밀함(intimacy)’이라는 코드를 통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내고자 하는 다양한 학문적 시도가 있었다.

델 바예 가문의 4세대 여성들을 다룬 “란초를 넘어서(Beyond the rancho)”라는 논문 또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830년대부터 1940년대를 거치면서, 토지, 계급, 문화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내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문화적 힘과 사회적 풍경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라모나』에서는 미-멕 전쟁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 재구성, 문화 접촉, 부동산 개발,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 등 란초 해체 과정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논문에서는 여성들이 변화무쌍한 외부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 특히 앵글로 미국인들의 유입과 정치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철도의 건설에 따른 가속적인 지역 개발이 바꿔놓은 사회 분위기 등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세대별 여성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획득하는 유동적인 정체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그링고화된 멕시코인(gringoized Mexican)’이라는 포괄적 용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 사회에서 란초 운영의 역동성은 이 지역 사회경제적 관계의 기초적인 동인이었고(Brown-Coronel 2011, 11), 사적/공적 영역이 얽혀 있는 가족 네트워크는 물론 사업, 정치, 문화의 전 방면의 관계 형성에서 내밀한 방식이 작동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란초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식민지 시대를 ‘내밀함’이라는 개념을 통해 바라보는 작업은, 결혼, 친족 관계, 성적 관계, 인종간의 만남에서 생기는 문화적 교류와 지식, 여성의 감각적 경험, 일상적 삶의 장애, 사회 변화를 미묘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그대

로 반영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런 시각은 『라모나』를 해석하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해 준다. 로살도는 “향수의 분위기는 인종적 지배를 결백하고 순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Rosaldo 1993, 107)라고 말하는데, 『라모나』는 이와 달리 캘리포르니오로 양육받은 혼혈 여성과 인디언 남성 간에 이뤄진 로맨스이기에 당시의 전형적인 다종적 결혼상에서 탈피해 있다. 물론 세노라 모레노에 의해 여성의 권력 표출이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매우 부정적인 묘사에 그치고 있지만,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과 경험에 중점을 둔다면 소설 속 란초에 대한 보다 구체적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연구의 흐름 내에서 당시 사회경제구조상 란초의 중요성과 가족/가문의 역할, 여성의 결혼을 통해 이뤄지는 문화적 지식 교류 등을 다루는 연구서의 출판이 활발하다.<sup>14)</sup> 캘리포르니오의 목소리를 내밀함이라는 코드로 분석하는 데 여성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 준다. 증언서는 캘리포니아 초기 역사 기술에 있어서도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당시의 증언 수집과 기록에는 기본적으로 해석/번역의 문제, 즉, 구어/문어, 스페인어/영어, 정복자/피정복자, 과거/현재 등의 문제가 깊게 관여되어 있어 역사적 담론 안에서 발현되는 캘리포니아의 주체성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번역의 틈 사이로 내비치는 주체적 목소리를 분석하려는 학계의 움직임에 유용한 사료로서 기능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 구체적 사례로, 로사우라 산체스

14) 브라운-코로벨이 논문의 9-12쪽에서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 소개된 바 없는 역사학 분야의 연구 서적들로 언급할 가치가 크다고 믿는다. 안토니아 카스타녜다(Antonia Castañeda)는 『성과 인종, 문화: 캘리포니아 경계 내 역사학에서 스페인-멕시코계 여성 Gender, Race, and Culture: Spanish-Mexican Women in the Historiography of Frontier California』에서 문화적 중개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다룬다. 바르바라 레예스(Barbara Reyes)는 『공적 여성, 사적 삶: 성과 캘리포니아의 수도원 Public Women, Private Lives: Gender and the Missions of the Californias』에서 인종 간의 결혼을 통해 가정 내의 여성의 활동 방식, 특히 ‘캘리포르니오 감성’을 어떻게 교육하는가를 보여준다. 미로살라바 차베스가 르시아(Mirosalava Chávez García)는 『정복의 협상: 1770-18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성과 권력 Negotiating Conquest: Gender and Power in California 1770s-1880s』에서 이 지역의 주권의 이양이 만든 여성의 권력 균형 변화를 추적하면서, 제도 내에서 여성들이 물리적 현실을 증진할 수단을 간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Rosaura Sánchez)의 『정체성을 말하기 *Telling Identities*』(1995)나 헤나로 빠디아(Genaro Padilla)의 『남이 아닌 나의 역사: 멕시코계 미국인의 자서전 쓰기 *My History, Not Yours: the Formation of Mexican American Autobiography*』(1993)를 언급할 수 있는데, 이 연구서들은 앵글로계 미국인의 지배에 맞선 칼리포르니오들의 증언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도전적 정치의식을 다루고 있다.

2006년 로즈 마리 비비(Rose Marie Beebe)와 로버트 센케웁스(Robert M. Senkewicz)가 편저한 『증언들 *Testimonios*』은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라는 주류 역사 담론에 대항할 대안적 역사 읽기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공한다. 이 증언들은 원래 『캘리포니아의 역사』를 위해 밴크로프트 연구원들이 수집한 인터뷰 자료로서, 이 책은 밴크로프트 도서관에 원고 형태로 있던 13명의 여성들의 인터뷰를 번역해서 엮었다. 이런 증언적 성격의 비망록은 대화 즉, 질문과 대답 형식의 글로서, 인터뷰를 맡은 조사원들이 수집과 번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해석을 개입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증언은 내밀함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일화들을 배경으로 캘리포르니오로서 정치의식이 어떻게 생겨나고 성장·변형해 가는지를 보여줄 충분한 공간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신화화된 스페인적 정체성이나 스페인적 유산에 대한 향수라는 맥락에서 멀찍이 벗어나, 여성들이 정치적 현안을 두고 지극히 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사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이 책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칼리포르니오들이 겪었던 벽면 안의 삶에 대해 세밀한 그림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VI. 나가면서

『라모나』는 창작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명백한 운명을 정당화시키면서 백인의 우월성을 각인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극적 로맨스로 인해 정치적 메시지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이국적이면서 화려한 스페인적 과거에 대한 향수가 사람들의 관심을 압도적으로 휩쓸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앵글로

중심의 스페인적 과거라는 역사적 담론에 저항하는 학계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다뤘지만, 그럼에도 이런 연구들이 캘리포르니오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하는 핵심적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19세기 특히 미-멕 전쟁을 전후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위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캘리포르니오 계급의 삶을 달리 이해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 역사학과 문학에서는 그들을 앵글로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된 역사적 단면으로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치카노 연구에서는 그들의 존재를 치카노의 영토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사용했고, 경계 연구에서는 스페인-멕시코계 출신의 정착민들의 삶을 국경의 아래쪽, 즉 멕시코측의 시각에서도 바라보아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로버트 맥기 어윈(Robert Mckee Irwin)은 『『라모나』와 포스트국가주의의 미국학 연구 *Ramona and Postnationalist American Studies*』라는 글에서, 라모나가 멕시코시티에 최종적으로 정착한 점, 멕시코 정부가 인디언들에게 토지를 분배한 점, 비교적 평화적으로 인디언들과 삶의 터전을 공유한 점을 들어 작가가 멕시코의 혼혈 문제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한다. 멕시코가 혼혈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이라는 생각을 작가가 소설에 반영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이런 선행 연구들의 다양한 지향점이 『라모나』 해석을 더욱 폭넓게 하고 있다. 본 글에서 소설 『라모나』와 캘리포르니오의 정의, ‘스페인적 과거 판타지’가 주도하는 역사 담론에 대응하는 캘리포르니오의 주체적 목소리, 이와 관련된 역사 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19세기 남부 캘리포니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앞으로 증언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 결과가 생산되어 캘리포르니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현균 · 이은아(2012), 「19세기 라티노 문학의 트랜스아메리카적 기원에 관한 고찰」, *세계문화비교연구*, 제 39권, pp. 163-188.
- Almaguer, Tomás(2008), *Racial Fault Lines: The Historical Origins of White Supremacy*

- in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lemán, Jesse(2002), "Historical Amnesia and the Vanishing Mestiza: The Problem of Race in *The Squatter and the Don* and *Ramona*," *Aztlán*, Vol. 27, No. 1, pp. 59-93.
- Bancroft, Hubert Howe(1888), *History of California, vol. 6*, San Francisco: The history company.
- Beebe, Rose Mare and Robert M. Senkewicz(trans.)(2006), *Testimonios: Early California through the Eyes of Women, 1815-1848*, Berkeley: Heyday Books.
- Brown-Coronel, Margie(2011), "Beyond the Rancho: Four Generations of del Valle Women in southern California, 1830-1940,"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Casas, María Raquel(2007), *Married to a Daughter of the Land: Spanish-Mexican Women and Interethnic Marriage in California, 1820-180*,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 Castañeda, Antonia I.(1990), "Gender, Race, and Culture: Spanish-Mexican Women in the Historiography of Frontier California," *Frontiers: A Journal of Women Studies*, Vol. 11, No. 1, pp. 8-20.
- Delyser, Dydia(2003), "*Ramona* Memories: Fiction, Tourist Practices, and Placing the Past in Southern Californi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93, No. 4, pp. 886-908.
- Del Castillo, Richard Griswold(1980), "The Del Valle Family and the Fantasy Heritage," *California History*, Vol. 59, No. 1, pp. 2-15.
- Deverell, William(2004), *Whitewashed Adobe: The Rise of Los Angeles and the Remaking of its Mexican Pas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as, Lisbeth(1995), *Conquest and Historical Identities in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rtado, Albert(1999), *Intimate Frontiers: Sex, Gender and Culture in Old California*,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Irwin, Robert Mckee(2003), "*Ramona* and Postnationalist American Studies: On 'Our America' and the Mexican Borderlands," *American Quarterly*, Vol. 55, No. 4, pp. 539-567.
- Jackson, Helen Hunt(2002), *Ramona*, New York: Signet Classics.
- Kropp, Phoebe S.(2006), *California Vieja: Culture and Memory in a Modern American*

- Pl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ópez, Marissa K.(2011), *Chicano Nations: The Hemispheric Origins of Mexican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Lorimer, Michelle(2013), “Reconstructing the Past: Historical Interpretations and Native Experiences at Contemporary California Mission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McWilliams, Carey(1946), *Southern California: An Island on the Land*, 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 Monroy, Douglas(1990), *Thrown Among Strangers: the Making of Mexican American Culture*,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dilla, Genaro(1993), *My History, Not Yours: The Formation of Mexican American Autobiograph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Pearson, Chelsea(2013), “‘Call me a Californio’: Translating Hemispheric Legacies in Helen Hunt Jackson, Don Antonio Coronel, and José Martí,”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ter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 Pitt, Leonard(1998), *The Decline of the Californios: A Social History of the Spanish-Speaking Californians, 1846-189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aldo, Renato(1993), *Culture &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ston: Beacon Press.
- Sánchez, Rosaura(1995), *Telling Identities: The Californio Testimonio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arr, Kevin(1985), *Inventing the Dream: California Through the Progressive Era*, New York: Oxford Press.
- Venegas, Yolanda(2004), “The Erotics of Racialization,” *Frontiers*, Vol. 25, No. 3, pp. 63-89.

## 이은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novela63@snu.ac.kr

논문투고일: 2014년 4월 9일

심사완료일: 2014년 4월 14일

게재확정일: 2014년 4월 14일

# Californios in the 19th Century and the ‘Spanish Fantasy Past’ in *Ramona*(1884)

**Euna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Euna(2014), Californios in the 19th Century and the ‘Spanish Fantasy Past’ in *Ramona*(1884).

**Abstract** Helen Hunt Jackson’s famous novel, *Ramona*(1884) portrays melodramatic and interethnic romance that reproduces the privileged status of European heritage that displaced California’s nineteenth-century Spanish-Mexican and Indian populations. *Ramona* is generally considered the original source for Southern California’s ‘Spanish Heritage Revival’ tradition because of its nostalgic and picturesque depiction of Old California.

The essay introduces dominant criticism about the novel’s role in promoting the ‘Spanish Fantasy Past’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s of California’s socioeconomic decline. To counter the Anglo-generated, institutionalized and historicized ‘Spanish Heritage Revival’, the essay highlights that the recent scholarships about the early Californio rancho society have endeavored to uncover Californios’ involvement in constructing and configuring their identities. Mariano Vallejo, wh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History of California*, is regard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testimonial voice to the embodiment of California’s subjectivity.

To render a closer look at the inner life of Rancho society, the essay illustrates that the conceptual code of intimacy is pertinently employed as a new critical approach to the identities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of Californios. Drawing on the premise that the gender and intimate relation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women’s public and private worlds, the essay reveals that an in-depth analysis of Californios’ voices inscribed in the early testimonios and historiographical narratives provide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o the prevalent ‘Spanish Fantasy Past’.

**Key words** Helen Hunt Jackson, *Ramona*, ‘Spanish Fantasy Past’, Rancho society in the 19th century California, Californio, Mariano Vallejo, *Testimonios*, Intimacy